

전기 사용 많은 여름, 축사 화재·정전 대비 철저

- 여름철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 높아
- 전기 기구 주변 먼지, 거미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 정전 경보기 설치 및 예비 발전기 확보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축사 화재와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시설과 배선 설비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에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 시설 사용이 급증한다. 과도한 전력 사용은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한다.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기 기구는 즉시 교체한다. 전기 기구의 접촉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주위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도 제거한다.

축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구는 안전 인증을 받은 공인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콘센트나 소켓 하나에 전기 기구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하지 않는다.

특히 자동 급이기, 환기 시스템 등 전기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축사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정전 발생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격전류 초과로 발생하는 전원 공급 차단에도 대비해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무창형 축사(돈사, 계사)의 경우 정전으로 환기팬 작동이 멈추면 가축의 질식사 위험이 커져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비상시에 대비해 평소 소요 전력량의 120% 용량에 해당하는 자가 발전기를 확보하고, 주 1회 이상 연료 점검과 발전기 상태를 확인한다.

축사 안팎의 전선 피복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쥐와 해충 등이 전선 피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배관 작업을 철저히 한다.

비가 잦은 시기에는 배전반과 전기 구동 장치 주변에 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점검하고,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낙뢰 위험이 큰 고지대나 산간에 있는 축사에는 반드시 피뢰침을 설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 원인 중 49%가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라며, “올여름도 축사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를 자주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여름철 축사 정전 사고 예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길원 (063-238-7400)
		담당자	연구사	장동화 (063-238-7417)

□ 사고원인별 보험금지급 현황(농업재해보험연감. 2023)

- 사고원인별 보험금지급 현황(2021) : 146,247 백만원
 - 사고원인별 보험금지급 비율 : 질병폐사(43.2%), 화재(26.5%), 절박도살(11.1%), 전기위험(8.0%), 폭염(6.6%), 기타(4.6%)
- 사고원인별 보험금지급 현황(2022) : 133,110 백만원
 - 사고원인별 보험금지급 비율 : 질병폐사(40.3%), 화재(34.4%), 절박도살(10.8%), 전기위험(6.7%), 폭염(4.4%), 기타(3.3%)

□ 축사 화재 통계(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전국 축사 화재 발생 건수(2023) : 385건
 - 발화 원인 : 전기적 요인(49%), 부주의(21%), 미상(15%), 기계적 요인(10%), 화학적 요인(2%), 기타(2%)

필요 전력량 계산 방법

◇ 직경 630mm 환기팬(220V, 3A, 660W) 10대를 동시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 $660W \times 10대 = 6.6kW \times 120\% = 7.9kW$
 이외에 전등, 모터 등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됨